

석사학위논문

고대사회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

지도교수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양인홍

2006년 8월

# 고대사회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

지도교수 양 진 건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제출자 양 인 흥

양인흥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 고대사회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

양 인 홍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연구는 고대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고대 제주도의 비형식적 교육에 내재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적 행정행위를 도출하는데 주안을 두며, 문자나 기술 양식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전형과 특질을 찾아보고, 제주교육 나름의 지역성과 제주인들의 삶과 관련한 제주교육의 정체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제주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 고대사회에서의 교육의 특질을 파악한다.

둘째, 고대 제주에서의 비형식적 교육에 내재한 교육적 행정행위의 도출을 통해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전형과 특질을 밝혀낸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내용에 따라 고대사회에서의 교육의 특질과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전형과 특질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고대사회의 교육은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자각 같은 것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육의 목적은 보존에 있었으며 집단생존이라는 생활자체의 목적과 동일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대에 있어 집단생존을 위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집단성원의 관리문제, 곧 인구조절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출산(出産)과 장사(葬事)의 예(禮)이다. 출산과 장사의 예는 단순히 통과의례의 절차로 한정되기 보다는 개인이 살아가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문화적 기대에 따라 집단적으로 강요되는 일련의 사회교육적 교육풍습으로, 그러한 교육풍습의 관리 는 고대교육의 보존적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일련의 교육행정적 절차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제주도의 지식묘의 성혈(性穴, cupmark)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삼성신화의 구조체계는 제주도 고대사회의 집단생존을 위한 보존적인 교육목적이 일련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음을 시사하는 좋은 예이다.

---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삼성신화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소거지의 삼분과 삼계층의 서열화는 고대 제주도 사회조직의 관리행정 기능이 삼분체계의 구조로 분화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의 삼부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부조직은 고대 제주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신적 생활에 관여하는 형식 및 한계에 관한 공적 규정이며 고대 제주 사회라는 공동체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적 활동으로서 제주도 고대 교육행정의 독특한 구조인 것이다.

넷째, 공동체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적 활동으로서 제주도 고대 교육행정의 구조는 혼인지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혼인지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지역외혼인(地域外婚姻) 문제로, 지역외혼인은 열성요인끼리의 결합을 예방하려는 우생학적 결혼관행으로서 법적인 제재력 같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행의 준수는 정신생활의 행정이 지향하는 핵심내용이며 전통육아방식의 절차로서 유아교육과 관련한 교육행정의 또 다른 일면인 것이다.

다섯째, 탐라국에서 언제부터 문자를 사용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몽계필담(夢溪筆談)□□의 기록으로 보아 고유의 특수한 표기문자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고유의 언어적 특색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문자사용과 관련한 도야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째, 고대사회에 있어서 기술교육은 집단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그 도구를 조작하는 등 제행위의 모방, 훈련, 학습의 일상사 외에도 특수한 비의(秘儀) 전수의 양식이나 형태 속에 그 모습들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구 제작과 도구 조작의 규칙을 습득한다는 것은 종족의 존속에 절대로 요구되는 본질적 행위로, 기술교육이란 다름 아닌 그러한 규칙에의 입문을 말하는 것이며 입문의 절차가 곧 기술교육행정인 것이다.

일곱째, 농업관계분야의 기술교육은 제주도의 풍토적 악조건에 맞서기 위해 땅을 일구는 방법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방법 등이 후대로 전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기구를 주조하는 풀무질 같은 기술이 점차 발달하였고, 교육적 형식을 통한 기능인을 양성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탐라의 기술교육은 외부와의 교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선과 항해술의 흔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탐라가 일찍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해상교역을 통하여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과도 해상교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과 항해술에 관련한 기술교육이 매우 활발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기술교육을 관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관리는 기술교육과 관련한 교육행정의 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예이기도 하다.

아홉째, 탐라의 기술교육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점차 조직의 구성원들이 기능 또는 직능에 따라 각각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는 조직의 기본원리로서 탐라의 교육이 미미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교육행정의 원칙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3
3. 연구의 방법 .....	4
II. 고대사회 교육의 특징 .....	6
1. 탐라의 교류와 교육사적 의미 .....	6
1) 백제와의 교류 .....	9
2) 고구려와의 교류 .....	12
3) 신라와의 교류 .....	15
2. 고대사회 교육의 특징 .....	17
III. 고대사회의 교육행정 .....	19
1. 집단생존의 교육행정 .....	19
1) 통과의례의 교육풍습 .....	19
2) 협동의 과정 .....	23
2. 삼성신화의 교육행정 .....	24
1) 신화의 행정구조 .....	24
2) 설화의 의미 .....	32

IV. 탐라국의 교육행정 .....	37
1. 탐라국의 성립 .....	37
2. 탐라의 언어교육행정 .....	39
1) 언어와 교육행정 .....	39
2) 탐라의 언어관리 .....	41
3. 탐라의 기술교육행정 .....	43
1) 농업(農業) 관계 교육 .....	43
2) 해양(海洋) 관계 교육 .....	49
IV. 요약 및 결론 .....	54
1. 요약 .....	54
2. 결론 및 제언 .....	58
참고 문헌 .....	61
<Abstract> .....	6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역사 안에서 현존하며 역사를 만들어 온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생활 세계에서의 삶의 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의 기저에는 인간의 존속을 위한 교육적 행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의 역사는 과거에 기성세대가 성장세대를 기르며 가르치기 위해 계획하고 실천한 모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활동들의 현상을 일정한 역사의식을 통하여 파악한 내용으로, 인류 문화의 생성과 발전이 모두 교육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에 교육이 어떠했다는 것을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정한 시각과 기준을 통해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교육을 정확하게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행정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교육 형태에 국가가 간여하여 이에 법적 규정을 두어 공교육제도로 운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국가적 학교제도로 형성되고 발전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규명이 곧 교육행정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양진건, 1991).

교육이 인류 역사의 태동과 동시에 이루어진 인위적 행위라고 본다면,

교육행정의 역사 역시 인류의 태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주교육행정의 역사는 제주교육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교육행정이 국가의 법적규정에 의한 공교육 제도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논한다면 제주도 교육행정의 역사는 근대에 들어와서야 가능했던 것처럼 진술되겠지만, 그러한 입장은 교육은 삶의 원현상(原現象)이라는 교육사상사적 의미를 의식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바라보면 지나치게 도식적이라 하겠다.

학교교육 - 교육할 목적으로 형성된 조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체계적인 교수 - 조차도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갈 정도이다. 행정 또한 수천 년 동안 행해져왔다. 잉카제국에서 도로나 사원을 건설하거나 이집트 왕조를 위해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에 고대 문명국가들은 오늘날 기업 혹은 정부의 운영에 상응하는 관리문제에 봉착했었다. 그러나 유독 금세기 들어 교육기관들은 행정을 독특한 연구와 실제로 구성된 영역으로 발돋움할 만큼 크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각각 그 자체의 독특한 지식체, 전통 그리고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두 개 전문영역의 합류점상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행정의 분리된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행정의 발전과정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박종필, 2002).

그러므로 제주교육행정의 역사는 제주인들의 생활사에 대한 교육적 관찰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고대의 교육행정 현상을 추적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제주교육행정의 역사가 고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특히 교육행정 현상의 과거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교육행정 현상의 미래에 대한 당위적 규칙들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고대의 제주교육은 집단생존과 관련되어 있으며, 교육의 목적은 생활의



보존이라는 명제를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러한 고대의 보존적 교육현실은 일련의 교육행정적 절차를 함의하고 있어서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역사성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데, 원시사회에서의 초보적 교육 행위에 따른 교육 정책이 한층 제도화된 부족국가체제에서는 그러한 절차들이 보다 진전되고 다양한 양식을 갖추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역사를 다루는 기본 시각은 교육행정이라는 것을 효율적인 조직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과정으로 보는 협동행위론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 고대 제주도의 비형식적 교육에 내재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적 행정행위를 도출하는 데 주안을 두게 된다. 아울러 문자나 기술양식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전형과 특질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대사회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제주교육 나름의 지역성과 제주인들의 삶과 관련한 제주교육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 제주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고대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옛 문헌에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 제주도의 비형식적 교육에 내재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적 행정행위를 도출하는데 주안을 두고, 문자나 기술 양식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고대 제주교

육행정의 전형과 특질을 찾아봄으로써 제주교육발전의 토대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 고대사회에서의 교육의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고대 제주에서의 비형식적 교육에 내재한 교육적 행정행위의 도출을 통해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전형과 특질을 밝혀낸다.

### 3. 연구의 방법

교육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역사적 접근 방법(historical approach)이다. 역사적 접근 방법은 각종 교육행정체도의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발전되어 온 특수한 사유를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역사적 접근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과 그 전개와 경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사회의 특정 역사적 시점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자체의 심오한 원리를 발견하는 데 공헌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론을 정립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한국교육행정학연구회,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유는 연구 방법이 아주 특별해서가 아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

이 다양한 형태로 상호 관련되어 있고, 어느 시대든 인간의 존재와 제도들이 결코 분리되어 따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교육은 삶의 양식과 혼재되어 있어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류 문명의 흔적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그 때에도 교육은 있었으며 행정의 바탕이 된 교육행정의 생각이나 원리는 있었을 것이므로, 이것을 찾아내고 분간하여 가능하면 체계화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접근 방법을 통해 고대사회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고대사회 교육의 특징

### 1. 탐라의 교류와 교육사적 의미

고대 제주의 교육과 교육행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제주인들의 여러 나라와의 교역을 통한 제주의 문화적 교류를 살펴보고, 고대 제주인들의 생활이 어떠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아진다. 그 이유는 고대사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와 같이 분업화되고 조직화된 제도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비롯된 삶 그 자체가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사회의 제주 교육을 논하는 것은 고대사회의 제주 문화를 찾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제주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73년에 발견된 북군 애월읍 어음리, 속칭 「빌레못동굴」의 유적에서 선사인(先史人)들이 먹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황곰, 붉은 사슴, 노루 등의 동물뼈 화석과 굽개, 돌칼, 박편토기, 흙날 등의 석기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김원룡 교수 등에 의하면 7만 년 전 ~ 8만 년 전 중기 구석기 시대에 원시인이 거주했던 혈거(穴居) 유적지라고 하였다(한라일보사, 1991). 이는 제주에 독자적인 삶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드러 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왕래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문자화된 기록이 없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이나 유물로 판단하여 신석기 시대로 추측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2천 년 ~ 5천 년 전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들어온 선사인들에 대하여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주장이 있으나 소수의 일본, 유구 등의 남방도서족이 먼저 표착한 후 북방계 한족이 점진적으로 집단 이동해 오면서 고대 제주족을 형성하는 주맥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제주 문화는 지배되고 전승되어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제주시, 1985).

제주도의 고대사회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중국 진(晉)나라 때 진수(陳壽)<sup>2)</sup>가 쓴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 한조(韓條)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주호가 있는데 마한(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이 있다. 그곳 사람들은 몸집이 작고 언어도 한(韓)나라 사람과 다르다. 모두 머리를 깎아서 마치 선비족과 같다. 옷은 가죽옷을 입었는데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는 없어 마치 벗은 모양과 같다. 소와 돼지를 잘 기르고 배를 타고 중한(中韓)을 왕래하며 장사를 한다<sup>3)</sup>

이 시기에 제주인들은 이미 해상활동을 통한 원거리 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증거로는 1928년 제주시 산지항 축조 공사 때 한(漢)나라 화폐와 구리거울 같은 파편 등이 발견되었고, 1984년 발굴된 용담동 무덤 유적지에서도 한(漢)나라 때의 철제무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상을 통한 대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

2) 陳壽는 中國 晉나라 惠帝 7年 西紀 297年 사망.

3) 『三國志』 魏志 東夷傳,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髮頭如鮮卑 但衣革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市賣中韓」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와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문화 전파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점차 발전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교류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문화 요소들 또한 당연히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제주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마을들이 형성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고도(孤島)라는 지역적 조건은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다. 선사·고대 항해는 육지를 보면서 선박을 진행시키는 해안이동(海岸移動) 방법을 이용했다. 따라서 항해자는 자신의 위치를 항상 확인하면서 항해할 수 있었고, 기상 악화나 야간에는 즉시 인근 포구(浦口)로 대피할 수 있는 이점(利點) 때문에 원시 항해술 시대에는 주로 연안항법(沿岸航法)을 많이 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해로(海路)는 육로(陸路)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교통로였다. 육지에는 숲과 해충, 맹수와 적대적인 이민족, 그리고 지형상의 험한 장애물이 가로 막고 있으나 해로는 이러한 장애가 없으며 대량수송과 가까운 거리로 손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출현은 수레보다 빨랐던 것이다. 따라서 선박의 출현이 인류의 해상이동의 시작이라면 구조선(構造船)의 출현은 보다 발달된 기술에 의한 원거리 항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정진술, 1992).

고대 탐라인들의 해상을 통한 외부세계와의 교류는 고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탐라가 해상 활동을 통한 주요 교류는 시계(視界)에 의해 항해가 가능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변국들과의 교역을 통한 왕래는 자연스럽게 교역 국가의 문화체계를 수용하여 나름대로 제주라는 지역 정서에 맞

게 발전시켜 나갔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제주 고대 사회의 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교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 백제와의 교류

탐라와 백제와의 관계는 고대사회 이전부터 이미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앞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고대인들의 항해가 시계(視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연안항법(沿岸航法)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탐라와 백제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중국 문헌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는 주호인(州胡人)들은 백제의 모체(母體)인 중한(中韓)과 교역을 하였다<sup>4)</sup>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탐라와 백제는 건국 이전부터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 시대에 들어 탐라와 백제와의 관계는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紀) 문주왕(文周王) 2년(476년) 4월조에, 탐라국에서 방물을 바치므로 왕이 기뻐하여 그 사자에게 백제의 관등(官等)인 은솔(恩率)을 주었다<sup>5)</sup>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탐라와 백제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성왕(東城王) 20년(498년) 8월조에, 왕은 탐라에서 공부(貢賦)를 바치

---

4) 각주 3) 參照.

5) 『三國史記』 <百濟本紀> 文周王 二年 四月條, 「耽羅國 獻方物 王喜拜使者 爲恩率」

지 않으므로 친히 정벌하려고 무진주까지 이르니, 탐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파견하여 사죄하였으므로 그만 두었다<sup>6)</sup>고 되어 있다. 이는 당초 양국이 우호간계를 맺을 때 공부(貢賦)의 약속이 있었던 사실을 반영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앞서 맺었을 약속을 이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사서(史書)인 <일본서기(日本書紀)> 계체기(繼體紀) 2년(508년) 조(條)에 의하면, 무령왕(武寧王) 8년(508년)에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와 통교(通交)하였다<sup>7)</sup>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사서에 기록된 탐라와 백제와의 관계는 <수서(隋書)> 권 81열전 제46 동이백제조(東夷百濟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백제 위덕왕(威德王) 36년(589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陳)을 평정하던 해에 한 전선이 표류하여 해동의 탐모라국(耽牟羅國)에 도착했다가 그 배가 돌아갈 때 백제의 경역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창(昌, 백제의 위덕왕)은 물자를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고 겸하여 사신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올려 진(陳)나라를 평정한 것을 치하하였다. 이에 高祖는 이를 좋게 여겨 조서(詔書)를 보내어 말하기를 백제왕이 이미 진을 평정했다는 말을 듣고 멀리서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보내왔는데 왕복하기가 극히 어려워 만일 풍랑이라도 만난다면 혹 몸이나 상할까 걱정된다. 백제왕이 마음씨가 순박하고 지극한 것은 내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서로 거리가 멀지만 우리의 일은 한 가지이고 말하는 것도 같은 터에 어찌 자주 사신을 보내

6) 『三國史記』 <百濟本紀> 東城王 二十年 八月條,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遣使乞罪乃止」

7) 『日本書紀』 繼體紀 二年條, 「12月 南海中耽羅人初通百濟國」



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해마다 공물을 바쳐올 것 없고 나도 또한 사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왕은 그렇게 알라고 하였다. 이에 사신으로 갔던 자는 기뻐서 춤을 추고 돌아왔다.<sup>8)</sup>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문무왕(文武王) 2년(662년)조(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탐라국왕 좌평(佐平) 도동음률(徒冬音律)이 항복하여 왔다. 탐라는 무덕(武德)이래로 백제에 신속(臣屬)한 까닭에 좌평(佐平)으로써 관호(官號)를 삼았다. 이에 이르러 항복하니 속국이 되었다.’<sup>9)</sup>

이것은 탐라가 백제의 육좌평관제 16등 관제를 따랐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교 경전을 기초로 한 통치이념이나 교육이념이 그대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비록 교육제도나 교육기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백제는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중엽까지 교육을 통해 오경박사(五經博士)와 전업박사(專業博士)를 배출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탐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백제 지역과의 교류—더 거슬러 올라 가면 마한 50여 개 국의 문물—를 통해 문화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

---

8) 『隋書』 卷八十一列傳 第四十六 東夷百濟條, 「平陣之歲 有一戰船 漂至海東 耽羅國 其船得還經于百濟 昌資送甚厚 并遣使奉表賀平陣 古祖善之 卜詔曰 百濟王既聞平陣遠令奉表 往復至難 若逢風浪 便致傷損 百濟王心迹淳至 朕已委如 相去離遠 事同言面 何必數遣使來相體悉 自今以後不須年別入貢 朕亦不遣使往 王宜知之 使者舞蹈而去」

9)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二年條, 「耽羅國主 佐平 徒冬音律來降 耽羅自武德以來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백제 지역의 다양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2) 고구려와의 교류

탐라와 고구려와의 관계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문자왕(文咨王) 13년(503년) 4월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구려에서) 사신을 북위(北魏 : 後魏)에 파견하여 조공하니, (북위의) 세종은 고구려 사신 예실불(芮悉弗)을 동당에 불러 만났다. 예실불이 나아가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귀국과 수호를 맺고 여러 대 정성을 다하여 땅에서 나는 산물로 조공을 어긴 적이 없었다.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가옥(珂玉)은 섭라(涉羅 : 耽羅)에서 생산되는데, 지금 부여는 물길(勿吉)에게 쫓기고 섭라는 백제에 합병되었습니다. 두 물건을 귀국에 바치지 못하는 것은 실은 이 두 적 때문입니다.’ 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고구려는 대대로 우리의 도움을 받아 해외를 전제하고 구이(九夷)의 교활한 놈들을 죄다 정벌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부끄러움을 끼치고 있으니, 이는 누구의 허물인가. 옛날에 공물을 바치지 아니한 허물도 그대들에게 있으니, 그대는 나의 뜻을 그대 임금에게 잘 전하여 그로 하여금 힘써 위엄과 회유의 책략을 써서 나쁜 놈들을 없애고 동방의 백성을 편안케 하되, 두 고을로 하여금 옛터를 회복하게 하여 토산물을 빠짐없이 바치도록 하라.’ 10)

10)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文咨王 十三年 四月條, 「正始中 世祖於東堂 引見 其使芮悉弗 悉弗進曰 高麗係誠天極累葉純誠 地產土毛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

이것은 백제 동성왕(東城王)이 탐라국을 복속시킨 약 6년 뒤에 있었던 고구려 사신 예실불(芮悉弗)과 북위 세종과의 대화 내용이다. 이 기록으로 보면, 고구려와 위(魏)나라와의 공헌(貢獻) 관계에 있어서 교역품 [朝貢品]에 탐라산 가옥(珂玉, 자개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탐라와 고구려의 교역관계는 장수왕(長壽王)을 전후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탐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고구려에서도 구입이 가능했었다는 것으로 이는 탐라와 고구려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탐라는 이미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때부터 항해술이 도입되어 있었고 5세기경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당시 백제와 고구려가 적대 관계에 있었던 만큼 백제의 영토를 거쳐 육로로 왕래했다기보다는 해상 교통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복제주군, 2000).

탐라와 고구려의 교역은 장수왕과 문자왕대는 백제에 있어서는 동성왕과 무령왕대가 되는데, 백제가 신라와 혼인동맹(婚姻同盟)을 맺고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비하여 내치(內治)에 국력을 경주(傾注)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남진정책은 소강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탐라는 동성왕 20년 백제에 복속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구려와의 교역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탐라의 대고구려와의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고구려 문화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탐라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도 국가 제도 등이 가장 짜임새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

---

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雲惟繼絕之義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世祖曰 高麗世荷上將專制海外 九夷點虜實得征之 瓶穀壘恥誰之咎也 昔方貢之愆 責任連率 卿宣宣朕旨於卿主 務盡威懷之略 掄披害群 輯寧東裔 使二邑還復舊墟 土毛無失常貢也」

었다. 고구려는 국초부터 이미 한자(漢字)를 사용하여 역사 편찬과 같은 기록 기술이 발달했으며<sup>11)</sup> 정치적 이념과 수단으로서 유학(儒學)이 장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형식적 교육기관이었던 관학(官學)인 태학(太學)이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372년)에 설립되었지만, 고구려 유리왕(기원전 19년 즉위)이 지은 황조가(黃鳥歌)<sup>12)</sup>를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유학에 기초를 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고구려의 건국에 비하여 학교 설립은 늦었다고 하겠으나, 이 태학의 설립은 중국 여러 왕조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 있어서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설립된 학교라는 점과 또 이 태학의 설립은 바로 한국 유학(儒學)의 정착을 의미한다는 데 교육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김환식 외, 1991).

그리고 관학(官學)으로는 주로 귀족이나 특수계급의 자제들이 수학하고 관리양성기관인 태학이 있었으며, 지방에는 사학(私學)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경당(扃堂)이 설립되어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당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방교육을 담당했던 서당이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통경습사(通經習射)를 중시하는 문무일치(文武一致)의 교육을 행하여 고구려 교육의 특징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고구려의 교육제도는 탐라인들이 교역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받

11) 『三國史記』 卷 第二十 高句麗本紀 第八, 「十一年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詔大學博士李文真 約古史爲新集五券 國初始用文字 時有人記事一百券 名曰留記 至是刪修」

12) 『三國史記』 卷 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펄펄 나는 피꼬리는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롭구나 이 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꼬.)」 우리나라 문헌 기록상 가장 오래된 노래이다.

아들여졌던 것은 아닌가하고 추측해 보게 된다.

### 3) 신라와의 교류

탐라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른 점이 많아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지만, 공적(公的)인 교류는 백제가 멸망(660년)한 후인 통일신라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문무왕(文武王) 2년(662년) 조(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탐라국왕 좌평(佐平) 도동음률(徒冬音律)이 항복하여 왔다. 탐라는 무덕(武德)이래로 백제에 신속(臣屬)한 까닭에 좌평(佐平)으로써 관호(官號)를 삼았다. 이에 이르러 항복하니 속국이 되었다.’<sup>13)</sup>

이것은 백제가 망하고 난 후에 신라에 입조한 것이며, 신라에 입조했다는 것은 통일신라시대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탐라는 신라에 신속(臣屬)하여 조공을 받치며 공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무왕(文武王) 19년(679년) 2월조에는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경략(經略)<sup>14)</sup>했고, 애장왕(哀莊王) 2년(802년)조에는 탐라국에서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였다<sup>15)</sup>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탐라와 신라는

13)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二年條, 「耽羅國主 佐平 徒冬音律來降 耽羅自武德以來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14)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十九年 二月條, 「發使略耽羅國」

15) 『三國史記』新羅本紀 哀莊王 二年條, 「耽羅國遣使朝貢」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라가 탐라를 경략(經略) 해서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신라는 지리적 취약성과 고구려, 백제의 견제세력 때문에 외래문화(儒, 佛)의 수용이 늦었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외래문화(儒佛文化)를 유리하게 소화, 섭취함으로써 특이한 교육 전통을 수립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화랑도교육(花郎徒教育)이다. 다만 교육과 관계해서 나타난 기록을 보면 27대 선덕여왕(善德女王) 9년(640)에 그들의 자제를 당(唐)의 국학(國學)에 입학시켰다는 것<sup>16)</sup> 등의 기록만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신라 사회 교육의 주종을 이룬 것은 화랑도교육이며, 학교 교육은 통일신라의 과제로 넘어간다(김환식외, 1991). 문헌에 기록된 신라의 학교 교육은 통일신라시대인 신문왕(神文王) 2년(682)에 국학(國學)이 설립되었고, 원성왕(元聖王) 4년(788)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여 신라의 교육은 유학(儒學) 교육에 기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신라가 사신(使臣)을 파견해서 탐라를 다스렸다면 통일신라의 국가 제도가 탐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문물이 탐라에 유입되어 탐라에 또 다른 통치행위라든가 교육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

16)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五 善德女王條, 「九年 夏五月 王遣子弟於唐 請入國學」

## 2. 고대사회 교육의 특징

제주도 원주민은 북방대륙으로부터 이주해 온 여러 종족과 주변 여러 도서지방으로부터 유이(流移)한 종족들로 복잡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제주도에 표착(漂着)한 여러 종족들은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절해고도(絶海孤島)인 이 섬에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 동화되고 융합하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렇듯 북방대륙계통과 주변 도서의 표류민이 혼합되어 성립된 까닭으로 그 문화는 북방적인 것과 남방적인 색채를 동시에 띠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원주민들이 행하였던 교육의 원래적인 모습을 고대 제주도 사회의 공동체적인 생활양식에서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제주도는 1만 8천 신(神)이 있다고 했듯이, 신들의 고향이라고 부를만한 곳이다. 그만큼 제주인들의 생활은 무속 신앙에 의존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러한 생활 속에 깃든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교육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육은 정치와 종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선사 시대 때부터 이미 신앙생활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남긴 동물 그림 등의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들의 행위가 소원 성취 차원이었든지 아니면 포획된 동물의 영혼을 생각했었든지 간에 그것은 일종의 기복(祈福)행위에서 비롯된 신앙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물론 제주도의 고대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자각 같은 것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설사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생활자체의 목적과 동일했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제주도 고대사회 교육의 목적은 보존(conservation)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Brubacher, 1947). 즉, 사회경험의 정립된 자본을 영속화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제주도 나름의 교육풍토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고대사회에 있어서 집단생존은 집단의 교육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적이기도 했다. 개인은 집단의 교육목적들과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집단생존, Dilthey의 해석학(解釋學)에 있어서 생존 즉,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체험하는 것이며, 표현하는 것이며, 이해하는 일이 그것이다(Dilthey, 1968). 따라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무정형(無定型)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형식들을 삶의 필연성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가 집단생존이라는 고대사회의 삶의 양식에서 보존적인 교육목적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인간 생존의 이러한 철학적 함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적인 교육목적은 고대 제주인들의 삶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교육은 구체적으로 관습이나 제도 등 일정한 형식 아래서 실현되고 전개되는 것이다.



### Ⅲ. 고대사회의 교육행정

#### 1. 집단생존의 교육행정

##### 1) 통과례의 교육풍습

집단생존을 위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집단성원의 관리 문제이다. 그것은 곧 인구조절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러한 인구를 조절하는 절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곧 출산(出産)과 장사(葬事)의 예(禮)이다. 집단성원의 생존과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행되었던 원시시대의 자녀살해 풍습이나 성년식은 그 대표적인 관습이다.

아마존강의 야누마피족은 열대 우림 지대의 생태계 균형에 반드시 필요한 인구 억제를 위해 여자아이를 살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녀살해가 집단생존을 위한 육아수의 제한제도였다면, 성년식(成年式)은 인간집단이 시도한 집단교육의 최초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사회의 성년식은 축제와는 달리 그 자체가 교육의식이라고 할 정도로 교육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의식이다.

이러한 고대사회의 성년식의 의미에 대해 피터즈(Peter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음의 발달에는 사회적 차원이 있다는 것과 분화된 사고의 형식들이 간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나면, 교육이 성년식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교육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경험 없는 사람들

의 눈을 개인의 사적 감정과는 관계없는 객관적인 세계로 돌리도록 해주는 일이며, 성년식이라는 말은 교육의 이러한 본질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성년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식을 뜻하는 경우에도 모종의 신념체계에 접하게 되는 과정을 암시한다(이홍우 역, 1980).

성년식이라는 습속은 고대국가의 어느 경우에도 확인되지만 그 중에서도 삼한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 즉,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의 ‘그 나라의 관가에서는 나이 어린 용감하고 강건한 자들로 하여금 성곽을 쌓도록 하였고, 또 그들 모두의 등가죽에 구멍을 내어 큰 밧줄을 통하게 하고, 열자나 되는 긴 나무를 꿸고 온종일 힘을 써도 아파하지 않으며, 더욱 힘을 쓸 정도의 강건함을 보이니 사람들은 이를 보고 환호하는 일이 그 나라에서는 있었다.’<sup>17)</sup>든가,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의 ‘소년들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고 등가죽을 뚫어 밧줄을 꿰어 큰 나무를 끌게 하고 그 강건함과 용기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였다’<sup>18)</sup>라는 기록은 우리의 고대사회에 있어서 성년식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해준다(박재문, 2001).

이러한 성년식의 습속은 삼한이라는 제주와 근접한 지역에서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드러난 바는 없지만 해양 교류가 활발했던 제주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그것은 성년식이 지니는 의미 이상으로 원초적인 교육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17) 『三國志』魏志 東夷傳, 「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丈許木 之, 通日 呼作力, 不以爲痛, 旣以勸作, 且以爲健。」

18) 『後漢書』東夷傳, 「其人壯勇 少年有築室作力者 輒以繩貫脊皮 繩以大木 嚙呼爲健」

그리고 출산과 장사의 예(禮)는 단순히 통과의례(通過儀禮)의 절차로 한정되기 보다는 개인이 살아가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문화적 기대에 따라 집단적으로 강요되는 일련의 사회교육적 교육풍습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풍습의 관리는 고대교육의 보존적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일련의 교육행정적 절차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예는 제주도의 지석묘(支石墓)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석묘는 우리나라의 부족국가 혹은 족장사회(chiefdom society) 단계의 지배층의 무덤으로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 60여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역사여명기의 제주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BC 1세기 경에서 기원 전후한 시기로 편년이 예측되고 있는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지석묘군을 보면 여러 기의 지석묘 상석(上石)에 무수한 성혈(性穴, cupmark)이 패여 있음을 볼 수 있어(이청규, 1985)<sup>19)</sup> 지석묘가 단순히 사자(死者)의 안식으로서의 공간인 분묘의 기능에만 한정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혈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내지 원시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으로서 소위 자손을 낳기 위하여 인간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닌 대상에게 기원하는 기자습속(祈子習俗)의 부산물로서 치성기자(致誠祈子)의 대상물이다.

기자습속은 지역에 따라 특이한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의 삼양(三陽)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운모 성분이 많은 모래로 부녀자의 복부를 찜질함으로써 출산력을 얻는 비방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는 거무스름한 모래가 달빛을 잘

---

19) 이청규에 의하면 전체 23호의 支石墓 가운데 제2호와 제13호, 제17호가 性穴이 패여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性穴은 지석묘의 덮개돌에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 성기의 상징으로 풍요와 다산(多産)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흡수하기 때문에 달과 풍요와 물과 여성의 생산원리와의 관계에서 볼 때 부녀자에게 출산력을 강화해 준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제주도에는 각 마을마다 신당(神堂)이 있어서 해마다 연초(年初)에 신당에 가서 당신(堂神)에게 자식을 낳고, 아무 탈 없이 자식이 자랄 수 있도록 치성을 드리는 풍속이 있었다.

조천면 와산리 부근 사람들은 1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웃당, 즉 신당(神堂)에 가서 당신(堂神)에게 아들 낳기를 비는 습속이 있다. 이 당의 본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웃당 한 집 당오름 좌정흔 옥황상제 말쭈 뜰애기 귀양오라 당오름 상봉 오지로 좌정흔여 큰 왕석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즈식 없는 예즈가 와서 이당이 영급이 섯건 포태를 시켜 주십서 하니 그 예즈가 포태가 되어서 그 당에 제를 지내고저 하였으나 그 당이 이신 상봉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이제는 다시 영급이 있거들랑 당오름 알레레 편안흔 테레 와 좌정흔시면 제를 지내겠습니다. 하니 그 말이 곧 떨어지자 그 상봉에 있던 돌이 알레레 둥글어 오라 좌정흔였습니다. 이제 즈식 없는 사람이 그 디 가서 수륙을 올리면 즈손 탄생 포태를 줍니다. 열이불두또 한 집입니다(진성기, 1967).

이러한 기자습속은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풍속이며 특히 지식묘의 성혈은 출산에 관한 풍속의 고대적 전형이라고 하겠다. 결국 지식묘는 출산과 장례를 동시에 담당해줌으로써 집단의 생존을 웅변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협동의 과정

제주도 고대사회의 집단생존을 위한 보존적인 교육목적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식묘의 축조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묘의 대략적 무게는 7톤 정도이며 100kg 정도가 성인 남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는 설을 따른다면 하나의 지식묘 운반에 70여 명의 성인 남자가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청규(1985)는 평균 4, 5인 정도로 구성된 생물학적 가족에서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여 광령리 일대에만도 최소한 3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묘 축조와 같은 대역사가 있을 때 인접한 몇 개의 마을 또는 씨족이 두레와 같은 일종의 협동조직체를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Waldo(1967)는 행정이라는 것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미리 계산된 인간의 합리적 협동행위라고 규정하였듯이 우리는 지식묘 축조라는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행정적 절차를 확인할 수가 있다.

두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결합할 때는 일종의 정신공동체이지만,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들 때는 촌락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지역공동체이며 「도(徒)」로서 삼한사회에 이미 존재했음은 이병도(1975)가 지적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인접한 촌락의 두레 혹은 도는 그 형성의 선후를 따져 형두레, 아우두레의 구별이 있으며 제주도에 있어서 삼성신화(三姓神話) 중, 삼을나(三乙那)의 소거지가 일도(一都, 徒), 이도(二都, 徒), 삼도

(三都, 徒)라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sup>20)</sup>(제주도, 1982).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삼성신화의 구조체계는 제주도 고대사회의 사고체계와 의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사회의 교육구조와도 관련이 깊다. 이런 점에서 삼성신화 역시 제주도 고대사회의 집단생존을 위한 보존적인 교육목적이 일련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음을 시사(示唆)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2. 삼성신화의 교육행정

### 1) 신화의 행정구조

신화(神話)라고 하면 흔히 환상이나, 아니면 조작물이라 간주한다. 그러나 신화를 깊이 고찰해보면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원시부족사회의 집단적 경험내지는 생활 자체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체험의 기초는 역사성의 시발이며 직관적 관찰이다. 그래서 조국신화(肇國神話)[건국신화(建國神話)]에 있어서는 우주 전체에 대한 깊은 성찰이 더욱 깊고, 정신적 통찰이 심저에 깔려 있다(김무조, 1989).

그러므로 신화의 내용을 하나의 상징체계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체계를 열어가는 역사적 안목에서 우주 질서의 내력을 함축하고 있

---

20) 『高麗史』地理志, 「三人以年次 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始播五穀」

다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화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이야기이며, 제주라는 지역 사회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역사적 문화체계인 셈이다.

탐라(耽羅)의 개국신화(開國神話)이면서 제주도 삼성(三姓)인 고, 량, 부(高梁夫)의 시조신화(始祖神話)인 삼성신화(三姓神話)는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삼성신화에 대한 이본(異本)들은 많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큰 차이가 없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에 실린 삼성신화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탐라현(耽羅縣), 전라도(全羅道) 남해 바다 가운데에 있다.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태초에 사람도 생물도 없었다. 세 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나 그 주산(主山.한라산) 북쪽 산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毛興)이라 하는데 이것이 그 곳이다.

첫째를 양을나(良乙那)라 하고 둘째를 고을나(高乙那)라 하고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 하였다. 세 사람이 인적 없는 황량한 곳에서 사냥질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 살았다.

하루는 자주색의 봉인한 나무상자 하나가 바다를 떠서 동쪽 바닷가에 이르거늘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또 석함(石函)이 있고 붉은 허리띠에 자주색 옷을 입은 사자(使者) 한 사람이 따라 왔다. 석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셋과 망아지, 송아지, 오곡(五穀)의 씨앗들이 나타났는데 이에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日本國)의 사신(使臣)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세 명의 딸을 두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약신(嶽神)이 신자(神子) 세 사람을 내려 보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配匹)이 없다라고 하시고 이에

신(臣)에게 명령하여 세 명의 딸을 모시고 가게 하였나이다. 부디 배필로 삼아 대업(大業)을 이루도록 하소서.’ 라고 하고는 사자는 문득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이 나이순으로 나누어 장가가서 샘물이 달고 토지가 비옥한 곳에 나아가 화살을 쏘아 땅을 점치고 양을나(良乙那)가 사는 곳을 제1도(都)라 하고 고을나(高乙那)가 사는 곳을 제2도(都)라 하고 부을나(夫乙那)가 사는 곳을 제3도(都)라 하여 처음으로 오곡(五穀)을 씨 뿌리고 또한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날로 살림이 풍부하여 갔다.

15대손(孫)인 고후(高厚)와 고청(高淸)에 이르러 곤제(昆弟) 세 사람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니 때는 신라의 번성하던 시기였다. 이때에 객성(客星)이 남쪽 방향에 나타나므로 태사(太史)가 아뢰기를, ‘이국인(異國人)이 내조(來朝)할 징조입니다.’ 라고 하였다. 드디어 신라에 들어오니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첫째를 성주(星主)라 칭하고 둘째를 왕자(王子)라 칭하고 막내를 도내(都內)라 하였으며 읍호(邑號)를 탐라(耽羅)라 하니 그것은 올 때 처음 탐진(耽津)에 상륙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각각 보개(寶蓋)와 의대(衣帶)를 주어 보냈다.

이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여 공손히 신라를 섬기니 고을나(高乙那)로 성주(星主)를 삼고 양을나(良乙那)로 왕자(王子)를 삼고 부을나(夫乙那)로 도상(徒上)을 삼았고 뒤에 또 양(良)을 고쳐 양(梁)으로 하였다.<sup>21)</sup>

21) 『高麗史』地理志, 「耽羅縣 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三神人 從地簞出 其主山北麓 有穴曰毛興 是其地也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有獵荒僻 皮衣肉食 一日 見紫泥封藏木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 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 生此三女 云西海中 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 命臣 侍三女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 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至十五代孫高厚 高淸 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 客星 遂朝新羅 王嘉曰 稱長子 曰星主 以其動星象也 二子



이 삼성신화의 구조를 도식화시켜 보면 용출(湧出)한 신인(神人)이 삼인이요, 그 소거지(所居地)가 일, 이, 삼도로 삼분되어 있고 삼을나가 장(長), 차(次), 삼(三)의 삼계층(三階層)으로 서열화되어 있는데 이 화소들은 사회공간과 사회질서의 인식양상이다. 소거지의 삼분은 사회공간의 삼분이며, 삼인 용출 그리고 삼계층의 서열화는 사회질서 구조의 삼분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가치개념의 서열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성원의 계층화를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한 것이다. 소위 삼이라는 수의 원리가 사상(事象)마다 일관되어 있는 것은 고대 제주도 사회조직의 관리행정 기능이 삼분체계의 구조로 분화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며 결국 사회의 삼부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현용준, 1983).

또한 이은상(李殷相)의 설(說)에 의하면 고을나(高乙那)는 KALNE, 양을나(良乙那)는 ALNE, 부을나(夫乙那)는 BALNE라 칭하며, KAL, AL, BAL은 신성(神聖), 광명(光明), 통어(統禦)의 뜻이라 하여 NE는 인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KALNE는 KAL구역 즉 제일도(第一都)에 거주하는 씨족, ALNE는 AL구역 즉 제이도(第二都)에 거주하는 씨족, BALNE는 BAL구역에 거주하는 씨족, 즉 제삼도(第三都)에 거주하는 씨족이라 하였고, 각 구역의 통치자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김종업, 1986).

특히 현용준(1983)은 삼성신화의 구조를 해명하면서 고을나는 ‘높을 닻’로 높은 이(崇高)의 뜻, 양을나는 ‘어질 닻’로 어진이(善良)의 뜻, 부

---

曰王子 王令清出勝下 愛如己子 故名之 季子 曰都內 邑號 曰耽羅盖以來時 初泊耽津故也 各賜寶盖 衣帶而遣之 自此 子孫蕃盛 敬事國家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

을나는 ‘불늑’ 내지는 ‘불늑’ 로 밝은 이(光明)의 뜻이 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종래의 서열순위 집착의 할거주의(割據主義)적, 분립주의(分立主義)적 해석을 뛰어넘는 탁견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적이다.

특히 이것을 바탕으로 입약(立約)과 시정(施政) 그리고 행형(行刑)의 조직기능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지는데 즉, 숭고(崇高)의 고을나는 입약의 조직이며 선량(善良)의 양을나는 시정의 조직이며, 광명(光明)의 부을나는 행형(行刑)의 조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같은 삼을나류의 삼부조직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며<sup>22)</sup> 결국 삼성신화의 삼분체계적 구조는 나아가 「계획 - 조직 - 통제」라는 현대행정의 관리조직(management organization)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은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하나이며 두 사람 이상의 의식적으로 조정된 활동 또는 힘의 체제를 조직(Barnard, 1938)이라고 한다면, 삼성신화는 고대 제주사회의 행정활동의 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삼성신화의 삼분체계가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적 노력을 입약, 시정, 행형의 원칙으로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음을 볼 때 조직의 원리 가운데 조정의 원리(the principle of coordination)가 깊게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정의 원리는 조직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거주의 내지 분립주의의 경향을 경계하고 조직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협동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

22) 歴史的으로 볼 때 神市와 古朝鮮의 風伯, 雨師, 雲師의 三伯組織과 大震의 政堂省, 宣詔省, 中臺省의 三省組織 그리고 高麗의 中書省, 門下省, 尙書省의 三省組織과 朝鮮의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 등 三政丞組織, 韓國의 立法部, 行政部, 司法部の 三部組織 등이 現代組織論의 計劃, 組織, 統制의 管理機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유추는 고대 왕권은 전체적이지 않았다는 기존의 정치사 연구(井上秀雄, 1974)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국가와 시대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형성기 화백회의(和白會議)에 의했던 신라의 귀족연합제 지배방식과 마찬가지로 탐라국의 개국설화가 합의하고 있는 삼부조직 역시 입약, 시정, 행형의 사무 분장을 통한 조직의 조정적, 합의적 지배방식이 가능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정적, 합의적 방식은 제주 삼신인이 살 땅을 활을 쏘아 정했다는 사시복지(射矢卜地)<sup>23)</sup>의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건강부회의 논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사시복지(射矢卜地)에 의해서 정했다고 하는 일도, 이도, 삼도의 위치에 대해서 이형상(李衡祥) 목사(牧使)는 <남한박물관지(南館博物誌)>에서 제주, 정의, 대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sup>24)</sup> 김종업(1986) 역시 각 씨족장들의 협의에 의해 사시복지(射矢卜地)가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는데, 그는 이를 바탕으로 일도, 이도, 삼도에서 제주도 전 지역을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으로 삼분하는 관할지역의 구역정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것은 <영주지(瀛州誌)> 기록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사시복지(射矢卜地)의 원형은 현재의 제주시 일도동(一徒洞), 이도동(二徒洞), 삼도동(三徒洞)이라는 지명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고대 씨족(氏族) 내지 부족국가(部族國家)가 초기에 전도(全島)의 광역(廣域)에 걸쳐 있을 수 없으므로,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으로 구분한 것은 삼현(三懸) 구분이 된 후에 삼신인이 전도를 분장한 것처럼 기술

23) 『高麗史』地理志,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24) 『南館博物』誌蹟, 「三人射矢卜地 高所居曰第一徒漢羅山北一徒里 良所居曰第二徒漢羅右翼之南山房里 夫所居曰第三徒漢羅左翼之南土山里」

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현용준, 1983).

그리고 이청규(1994)는 을나가 이끄는 마을 집단으로서 경쟁적인 관계는 탐라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제주시 권역으로 한정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 증거로 신화상의 감토비처(甘土肥處)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 유적을 축조할 만큼의 인력동원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의 존재를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분할 구도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입약, 시정, 행형의 사무 분장을 통한 조직의 조정적, 합의적 지배방식이 가능했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속 신앙이 생활 그 자체였던 제주의 서사무가(敍事巫歌)인 서귀(西歸)·동홍본향당(東烘本鄉堂)본풀이에서도 이러한 사시복지(射矢卜地) 예를 찾아 볼 수가 있다.

비씨영감 브르뫼도가 흥토나라에 다니다가 천하미색을 발견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사위로 들게 되었다. 장가를 들고 보니 부인은 추색인 고산국이고, 처음 발견한 천하미색은 그의 처제 지산국임을 알았다. 브르뫼도는 어느 날 처제를 데리고 제주 한라산으로 도망왔다. 이를 안 처 고산국이 곧 뒤쫓아 와서 다투기 시작했다. 세 부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뽕개질<sup>25)</sup>을 하여 좌정할 곳을 정하여 갈리기로 했다. 큰부인 고산국은 뽕개질을 하니 동홍리(東烘里) 안가름 흑담에 돌이 떨어지고, 브르뫼도는 뽕개질을 하니 서귀포 문섬 한도에 돌이 떨어졌다. 그래서 고산국은 자기 뽕개가 떨어진 곳 서홍리(西烘里) 지경을 차지해 가고, 브르뫼도와 지산국은 동홍리와 서홍리를 차지해 갔

25) 긴 노끈을 접어 겹친 끝부분 사이에 돌을 끼어 넣고 노끈을 쥐어 돌리다가 돌을 멀리 날려 보내는 일.

다. 이 후로 이 두 마을 사이에는 사이가 나빠 서로 혼인도 하지 않는다(현용준, 1983).

또한 안덕면(安德面) 광정당본풀이에서도 이러한 예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큰 형님은 제주(濟州) 과양당신이고, 둘째는 정의(旌義) 서낭신이고, 막내는 대정(大靜) 광정당신이다. 세 형제가 활을 쏘아 차지할 땅을 가르는데, 큰형님이 활을 쏘니 정의, 대정 경계에 떨어져 그 경계를 가르고, 둘째 형이 쏜 화살은 모관(濟州), 정의 경계를 가르고, 막내동생이 쏜 화살은 모관, 대정 경계를 갈랐다. 그래서 큰형님은 과양당에 좌정하고, 둘째형은 서낭당에 좌정하고 막내동생은 광정당에 좌정하여 모관(牧安 : 濟州), 정의, 대정을 각각 차지했다(현용준, 1983).

이러한 논의들과 서사무가를 토대로 하여 살펴볼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나마 고대 제주사회는 씨족장들의 주재하에 촌행정(村行政)이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촌행정은 대개의 경우 촌락의 집회소에서 씨족간의 중요한 사항을 회의에 부의(附議)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촌집회소는 부족사회에서는 부족집회소로 발전, 후일 정청(政廳) 및 관청(官廳)의 기원이 되었다. 이러한 촌행정에 기초한 씨족제도는 점차 수장(首長)과 군수(軍帥)의 직이 세습화되고 계급제도와 사유재산제도의 발생 등으로 붕괴되어 탐라국과 같은 원시부족국가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신화의 구조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고대의 제주인들을 구속하

였던 「정신생활의 행정」(Stein,L, 猪木正道 譯, 1949)으로서 곧 교육행정의 고대적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徒)의 개념이 두레조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면 제주도의 일도, 이도, 삼도는 일종의 교육두레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며(김형효. 1987),<sup>26)</sup> 따라서 삼성신화의 삼분체제는 곧 교육두레의 교육행정적 구조체계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원래 국민의 정신적 생활에 관여하는 형식 및 한계에 관한 공적 규정이 전체 의지에 의한 명령으로 될 때 한 민족의 정신생활의 행정은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부조직은 곧 고대 제주도 사회 성원들의 정신적 생활에 관여하는 형식 및 한계에 관한 공적 규정이며 결국 고대 제주도 사회라는 공동체(Gemeinschaft)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적 활동으로서 제주도 고대 교육행정의 독특한 구조인 것이다.

## 2) 설화의 의미

공동체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적 활동으로서 제주도 고대 교육행정의 구조는 단편적이지만, 삼성신화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설화 가운데 혼인지(婚姻址) 설화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성산읍(城山邑) 온평리(溫平里) 마을 일대에 전해오는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섬에 세 신인이 삼성혈에서 솟아나서 한라산 기슭을 돌아다니면서 수렵생활을 하며 살았다.

그들은 날이 새면 섬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즐겼는데, 하루는 지금의 성

---

26) 金炯孝는 高麗朝 崔沖의 私學十二徒도 일종의 教育 두레로 보았다.

산을 온평리 마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 우연히 높은 동산에 올라가 먼 바다를 내려다 보는데, 바다 갯가쪽으로 무엇인가 흘러오는 것이 있었다. 이상히 여긴 세 신인은 바닷가로 내려왔다.

바닷가에 이르러 보니, 이상한 물건이 갯가로 다가오고 있었다.

“저게 뭐야?”

“돌로 된 상자 아니야?”

“돌도 물에 뜨나?”

세 신인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틀림없이 신령스러운 물건일 거야.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늘이 보낸 것일지도 몰라.”

“그렇군.”

한 신인의 말에 나머지 두 신인이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서 웃었던 곳을 <쾌성개>라고 불려졌다.

석함(石函)이 물에 닿더니 스스로 열려졌다. 그 안에서 관원 차림을 한 사내가 먼저 내렸다. 사신(使臣)이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말이 뒤따라 내렸다. 그들은 말을 타고 세 신인이 있는 갯가로 올라왔다. 그 뒤에 세 처녀가 올라오는데, 그들은 손에 귀중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오곡(五穀)의 씨가 들어있었다.

“세 신인은 들으십시오. 먼 나라 황제께서 이 세 공주를 이 탐라국 세 신인과 혼인시켜 억만창생의 자손이 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곡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 살아가시도록 저 공주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소인의 전갈을 잊지 마소서.”

사신의 말에 세 신인은 기꺼이 세 처녀와 혼인을 했다. 그리고 이 못에서 목욕했는데, 그래서 이 못을 혼인지(婚姻池)라고 불려온다<sup>27)</sup>(제주

27) 『高麗史』地理志에 기록된 혼인지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日 見

도, 1995).

탐라의 시조 삼신인이 온평리 바닷가에서 세 처녀를 맞아들여 혼례를 올림으로써 비로소 제주민이 늘어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세 처녀의 출신성분에 대해 <고려사(高麗史)> 계(系)에는 일본국(日本國)의 왕녀(王女)라 하고, <영주지(瀛州誌)> 계에는 동해(東海) 벽랑국(碧浪國)의 왕녀(王女)라고 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현용준은 벽랑국(碧浪國)이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 보고 있다. 영조(英祖) 때 북제주군(北濟州郡) 애월읍(涯月邑) 출신 장한철(張漢喆)이 지은 <표해록(漂海錄)>에 보면,

일본(日本)의 대마도(對馬島)는 한라산(漢拏山)의 동북에 있고, 일기도(壹岐島)는 정동(正東)에 있고 여인국(女人國)은 동남(東南)에 있다.(중략) 청주(淸州) 황주(荒州)는 한라산의 서북(西北)에 있다. 이상 여러 나라는 다 탐라와 격(隔)하여 멀리 떨어져 거리가 몇 천만리 되는지 모른다. 그중 가장 먼 것은 동해(東海)의 벽랑국(壁浪國)이니, 일본의 동쪽에 있고, 거인도(巨人島)는 일기도(壹岐島)의 동남쪽에 있다. 인적이 통하지 않아 정교(政教)가 미치지 못하니. 이는 격세(隔世)의 별계(別界)다.<sup>28)</sup>

紫泥封藏木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 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 生此三女 云西海中 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 命臣 侍三女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 分娶之」

28) 『漂海錄』, 「日本之對馬島在漢拏山之東北 壹岐島在正東 女人國在東南(中略) 淸州荒州在漢拏山之西北 以上諸國皆與耽羅 隔海絕遠 不知其當距爲幾千萬里 其最遠者 東海之壁浪國 在日本之東 巨人島在壹岐之東南 人跡不通 政教不



라고 되어 있어서 벽랑국(壁浪國)은 여인국(女人國), 거인국(巨人國)과 더불어 상상의 나라라고 하면서, 벽랑국은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잔존(殘存)해 있는 15세기 이전의 제주 方言인 ‘바를’ 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무엇보다 혼인지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지역외혼인(地域外婚姻) 문제이다. 우리의 전통사회는 우생학적인 안목에서 지역외혼인을 장려하였었다. 이 혼인권은 본래 ‘백리내(百里內) 불혼(不婚)’ 이라는 우생학적 결혼관행 때문이었는데 전통사회에서 백리내 불혼의 결혼관행이 실시된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택규, 1964; 이만갑, 1973). 또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 예(濊)조에 ‘같은 성씨끼리는 혼인하지 못하니, 꺼리는 것들이 많았다’<sup>29)</sup> 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혼인문제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외혼인이 하나의 습속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도 관행으로 굳어져 양반일수록 통혼권(通婚圈)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반 중에서도 가계(家格)이 높을수록 백리 이상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여중철(1979)의 연구 결과 백리 이상의 원혼(遠婚)을 하는 경우는 반촌(班村)의 동족원 중에서도 가계(家格)이 높은 집에서 한했다는 것이다.

혼인지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외혼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결혼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통적 육아방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

---

及 自是隔世之別界也」

29) 『三國志』 魏志 東夷傳 濊條, 「同姓不婚. 多忌諱」

로 가치가 크다. 지역외혼인은 전통사회가 지리적, 풍토적 특성에서 기인될 수 있는 열성요인끼리의 결합을 예방하려는 우생학적 결혼관행으로서 법적 제재력 같은 것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회인들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였고 그러한 영향력으로서 전통사회인들의 생활방식에 관련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관행에 순응되어 지켜져 온 것이다. 그러한 관행의 준수야말로 정신생활의 행정이 지향하는 핵심내용이며 전통육아방식의 절차로서 유아교육과 관련한 교육행정의 또 다른 시사이기도 한 것이다.

혼인지 설화는 이밖에도 그 혼인관계가 견지하고 있는 개방성(開放性)이나 세 처녀를 맞아들일 때 망아지, 송아지, 오곡(五穀)의 씨를 가져왔다는 농축전래(農畜傳來)의 모티브를 통해 제주인들 사유방식의 원형(原形)이 지극히 도덕적이며 자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도덕적이며 자연적인 사유방식의 원형은 곧 고대 제주교육행정 이념의 자연법적인 전개과정의 한 실마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설화는 모든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가능케 하고 근거를 지어주는 사유의 시원적(始原的) 조건이기 때문에 혼인지 설화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도덕적이며 자연적인 제주인들의 원형적 사유방식은 고대 제주교육의 경험적 위치(*la position empirique*)로서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탐라국의 교육행정

### 1. 탐라국의 성립

원시수렵채취시대의 특징은 씨족사회로서 일정한 지역에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 이동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농목(農牧)시대로 옮겨 가면서 정착생활을 토대로 부족국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삼성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고, 양, 부 삼성의 씨족사회가 발전하여 삼씨족의 공동체인 원시부족국가가 성립되는데 이것이 곧 탐라국이다.

권력이 세습되는 단계에 이르면 세습 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혈연적 출자(出者)의 신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각 혈연집단의 시조(始祖)가 신격화되며 아울러 현실에서의 권력 분포상태를 반영하여 위격을 달리하는 신화(神話)가 나타나고 예속집단의 신화는 위축 폐기된다. 삼성신화는 바로 그러한 혈연적 출자의 신비화를 근거로 탄생되었던 것이며 그것은 탐라국의 전역사(前歷史)(Vorgeschichte)였던 것이다.

탐라국은 처음에 가라국, 백제와 교통하였고 12세기 초까지 탐라(耽羅), 섭라(涉羅), 둔라(屯羅), 탐부라(耽浮羅), 탁라(毛羅)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독립국가로서 그 명맥을 유지했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등과도 활발히 통교하면서 조공하는 관계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었다.

탐라국 행정조직의 성립과정을 개괄해 보면 삼성신화 설화에서 보듯 초기는 삼성씨족을 중심으로 한 토착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토착세력들

이 언제부터 육지부의 정권과 교섭을 시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으나 삼국시대 들어 육지부와와의 교섭은 시계(視界)에 의해 항해가 가능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삼국 중 거리가 가장 가깝고 신라보다 일찍 성장한 백제와 주로 교섭이 이루어진 것 같으며<sup>30)</sup> 백제가 망한 후 신라의 세력이 미치게 됨에 따라 문무왕 2년 이후에는 신라와의 종속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이때의 신라는 통일신라를 의미한다. 탐라국의 이러한 육지부 정권과의 관계는 곧 행정조직의 체제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그것은 곧 교육행정의 구조나 절차의 개편과도 연관된 문제이기도 했다.

원래 어떤 집단이든 생산력 및 사회관계를 전제로 한 그 같은 협동양식에서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의향이나 목적을 연결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일찍부터 음절이 간추려진 언어가 생길 수 있으며 언어로 상호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면 인간적 사고력의 향상은 물론이고 노동과정의 집단적 협동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은 정교한 의사소통의 체제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는 항용 집단적으로 관리가 되며 그 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계급이 출현하기도 하고, 관리의 체계를 위한 교육행정이 마련된다.

이처럼 교육행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교육현상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간여하여 이에 법적 규정을 두어 교육제도로 운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30) 『三國史記』 卷26, 百濟本記4, 文周王2年條, 「夏四月 耽羅國獻方物王喜 拜使者爲恩率」과 東城王20年 8月條, 「王以耽羅不修貢 賦親征室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라는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31) 『三國史記』 卷6, 新羅本記6, 文武王2年2月條,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來陸」.

할 수 있겠다. 교육제도(Bildungswesen)란 근본적으로 도야(Bildung)의 활동이 발전된 형태로서 언어는 도야 활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정신적 재산(das geistige Gut)이다.

## 2. 탐라의 언어교육행정

### 1) 언어와 교육행정

탐라국에서 언제부터 어떤 문자를 사용하였는지는 문자로 표기된 기록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한(漢)나라 화폐와 철제무기들이 도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한나라와 교역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에 이미 한나라의 유학 분위기가 탐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교역은 단순한 물품거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문화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라국의 문자 생활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몽계필담(夢溪筆談)』에 의하면 고려 태조 때 중국 소주(蘇州)지방에 표착한 탐라인들이 지방관에게 보인 문서 중의 글자에 대하여 「글줄은 서로 철(綴)하여져서 기러기 날아가는 행렬과 같은」<sup>32)</sup> 해독할 수 없는 문자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탐라인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탐라국에는 고유의 특수한 표기문자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은 육지부의 그것과 격심한 차이를 보이는데 활용어미들은 국어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그 어미 형태들 사이에 연대적으로 역사적 층

---

32) 『夢溪筆談』, 「行則相綴如雁行」.

위가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현평효 · 김홍식, 1974). 즉 7, 8세기의 어미 형태가 빈번히 쓰이는가 하면 18, 19세기 형태도 혼잡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는 고유의 언어적 특색을 이미 갖추고 있었으며 그러한 문자사용과 관련한 도야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짐작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탐라 원왕(遠王)이 고지창(高支昌)을 신라에 보내어 신라에서 통용하고 있는 이두문(吏讀文)을 배워오게 한 일<sup>33)</sup>이나 소주지방에 표착한 탐라인들이 소지했던 문서 가운데 고려 조정에 보내는 서류는 모두 한자로 썼으며 당(唐)에서 탐라에 고(告)한 문서도 있었음<sup>34)</sup>을 볼 때 당이나 일본과도 공식적인 교역관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외국어와 관련한 도야활동 역시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대 탐라어는 남방계어와 아이누어하고 관계가 있으며 그 근간은 북방계어인 반도언어 그 중에서도 고구려계에서 연유되었다(김공철, 1990)는 학계의 주장도 있듯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탐라국은 탐라라는 개체의 지역적인 언어권을 넘어서 공동체적 도식화(gemeinschaftliche Schematisierung)를 지향했었다는 사실이다.

즉, 탐라국이라는 하나의 언어조직은 더 나아가서 다른 언어집단과의 상호적 영향과 내적 소통을 통해 하나의 공속집단(共屬集團 : zusammengehörige Verkehr)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탐라 특유의 언어적 특색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른 언어집단들과의 공통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좀 더 광범위한 언어 단일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말이

33) 『耽羅星主遺事』 및 『耽羅史年表』 參照.

34) 『夢溪筆談』 「亦稱毛羅島 皆用漢字」.

다(Humboldt, 1969). 이러한 이유에서 탐라시대와 고려시대가 언어적 차원에서 단절되지 않고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연계성의 확보는 곧 공동체 언어정신의 생명력과 나아가 그것을 기초로 하는 탐라시대 교육현상의 생동성을 반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2) 탐라의 언어관리

또한 탐라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교육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신라 신문왕(神文王) 4년(684) 탐라 원왕(遠王)이 사람을 신라에 보내 이두문(吏讀文)을 배워오게 한 일과 탐라관청에서 고려조정에 보내는 서류는 모두 한자로 썼다는 기록인데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신문왕 4년은 신라의 대석학 설총(薛聰)과 강수(强首)가 생존해있던 시기이고 보면 이두문 학습에 있어서는 설총과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설총은 이두를 구경(九經)에 적용하여 유학의 대중화에 기여를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탐라의 이두문 학습과정에서 자연 유학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제주유학600년사편찬위원회, 1997).

아울러 고려조정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한자로 썼다는 기록에서는 강수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강수 이래 유학교육의 최고 목표는 춘추의리(春秋義理)에 배치되지 않는 미문(美文)으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예측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언어와 관련된 탐라의 제반활동은 이두문에서 한문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매우 포괄적이었으며 결국 신라를 통해 그 내용들을 숙지하게 되었고 고려조에 들어 순한문의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적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신라 중대 이래 춘추의리에 배치되지 않는 미문으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에 대하여 국학교육은 최고의 평가를 내렸으며 그러한 능력배양을 위해 문선(文選)과 춘추학(春秋學)이 교육되었는데 그 정치적 기능은 관인의 정치적 의례(儀禮)를 인지시키는 것과 외교를 위한 실용적인 것이었다. 신라의 이러한 교육추세는 근본적으로 문학은 학문의 형식이면서 말을 바르게 하는 것과 신절(臣節)을 드러내는 외교적 업무 특히 한림(翰林)의 직을 맡아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공용성을 주장한 한당유학(漢唐儒學)의 관도지기(貫道之器) 문학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탐라인의 고려조정에 순한문의 외교문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에서의 언어학습을 위한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교육의 사상사적, 제도사적, 행정사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조정에 한자로 된 외교문서를 보냈다는 맥락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말(message)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자연주의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점차 외교라는 경로(channel)와 문서라는 매체(medium)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보다 발전된 양식의 의사소통 유형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양식이 보다 공식화됨으로써 유형화된 공식적 의사소통은 곧 교육조직 운영의 중요 기능으로서 행정적 의사소통의 관건이다.



### 3. 탐라의 기술교육행정

탐라시대에 주목할 만한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기술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노예소유제 사회로 옮겨지면서 기술교육은 사회의 하층민이 짊어져야 하는 고역으로 전락하게 되지만 원시공동체의 기술교육이란 근본적으로 노동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를 만들고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합목적적으로 개조하려는 생활 활동이었다.

물론 고대사회에 있어서 기술교육은 아직 객관적 법칙성에 의한 기술과 주관적 법칙성에 의한 기능이 완전히 구분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집단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그 도구를 조작하는 등 제행위의 모방, 훈련, 학습의 일상사 외에도 특수한 비의(秘儀) 전수의 양식이 나 형태 속에 그 모습들이 내재하고 있었다.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에의 염원과 그 발전은 인류 출현 이후 물질을 변형시키거나 채구성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 제작과 도구 조작의 규칙을 습득한다는 것은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종족의 존속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본질적 행위였다. 기술교육이란 다름 아닌 그러한 규칙에의 입문을 말하는 것이며 입문의 절차가 곧 기술교육행정인 것이다.

#### 1) 농업(農業) 관계 교육

탐라의 기술교육은 우선 농업관계분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 토질은 농

업생산에 불리한 화산회토로서 지표에는 자갈 등 화산쇄설물이 널려 있다. 여기에다 지하는 화산의 영향으로 절리층을 이루고 있어 담수상태가 이루어질 수 없어 거의 전작(田作) 농법만이 가능한데 이렇듯 전작풍토이면서도 화산쇄설물의 영향으로 그 땅을 일구기란 지난한 일이었다. 더욱이 제주도의 농경은 「잡초와의 싸움」(강경선, 1982)으로 시종(始終)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농작업 중 가장 고된 노동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풍토적 악조건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땅을 일구는 방법이나 땅을 일구는 도구의 개발 등은 탐라의 농업기술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주호가 있는데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이 있다. 그 곳 사람들은 몸집이 작고 언어도 한나라 사람과 다르다. 모두 머리를 깎아서 마치 선비족과 같다. 옷은 가죽옷을 입었는데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는 없어 마치 벗은 모양과 같다. 소와 돼지를 잘 치고 배를 타서 중한을 왕래하며 장사를 한다.<sup>35)</sup>

이 기록에 있는 중한(中韓)의 위치에 대해 의문점이 있기도 하지만, 중한을 한군현(漢郡縣)에서 보아 마한과 변한의 중간지점에 있고 제주도와는 지근(至近)한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전라남도 해안지대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서쪽 마한과 동쪽 변한의 중간 지역, 즉 양한(兩韓)의 중간지대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중한 지역과 교역에 종사하였고, 철제 장검, 단검, 유리구

35) 『三國志』魏志 東夷傳,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髮頭如鮮卑 但衣革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市賣中韓」

슬 등으로 장식하여 자기 신분의 고귀함을 과시한 수장계층이 바로 「용담동인(龍潭洞人)」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진영일, 1994).

따라서 철기문화가 발달한 이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탐라인들은 그들 자신들에게 필요한 여러 문물을 수입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철을 다루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구를 생산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탐라국의 농경방식에 대해 <신당서(新唐書)>에는 「그 땅에 오곡이 자라고 농사일에 쇠스랑을 써 흙을 파서 고르고 소를 쓸 줄을 모른다.」<sup>36)</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팽이나 따비, 호미 등에 의하여 밭을 일구는 방식이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기구에 의존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풀무질을 이용하여 농기구를 만드는 방법 등이 고스란히 후대로 전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풀무질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농경 방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농기구와 주조 기술의 발달과정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서(新唐書)>의 내용을 놓고 보면 약 660년대 초(龍朔初) 제주도의 농경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농경 발달 과정에서 볼 때, 육지부에서는 벌써 신라(新羅) 지증왕(智證王) 3년(502년)부터 고도농경단계인 여경(犁耕, 쟁기로 갈음)이 시작되었지만<sup>37)</sup>, 제주

36) 『新唐書』, 流鬼傳,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草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37) 『三國史記』卷四, 智證麻立干條,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親祀神宮 三月 分命州郡主勸農 始用牛耕」

도는 육지부에 비하여 무려 160여 년이 지난 뒤까지도 호미나 팽이에 의하여 밭을 일구는 누경(耨耕, 호미로 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하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의 풀무질<sup>38)</sup>은 660년대 이전부터 누경에 알맞은 똑딱불미 형태의 풀무질이 가내수공업적 형태로 곳곳에서 전승되었다고 하겠지만, 여경에 알맞은 보습이나 벧을 주조하기 위한 고도의 풀무 형태인 토불미나 청탁불미는 훨씬 후에야 분업 및 산업화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광민, 1984).

그리고 제주도의 농기구들은 육지부의 농기구들에 비해 작고 가늘며 짧게 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조에 제주도에 유배를 왔던 김정(金淨)은 제주도 농업 환경에 대해서,

삼읍(三邑)땅이 모두 한라산의 기슭이라 자갈이 많아서 평토가 절반도 되지 않아 밭을 가는 자는 마치 고기의 배를 도려내는 것과 같다.<sup>39)</sup>

라고 말하고 있다.

38) 고광민은 제주도의 풀무질에 대해, 손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이거나 달구는 ‘손풀무’와 땅 바닥에 장방형의 골을 파서 중간에 굴대를 가로 박고, 그 위에다 골에 맞는 널빤지를 걸쳐 놓아 한쪽에 세 사람씩 서서 널빤지의 두 끝을 널뛰기하듯 디디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골풀무’가 있으며, 제주도에선 손풀무는 ‘똑딱불미’와 ‘토불미’로 구분되는데, 똑딱불미에서는 주로 1~2명에서 시우쇠를 달군 후 매질하여 칼이나 호미 등을 만들었고, 토불미에서는 약 20여 명이 협업으로 일을 하며 두 사람이 1조를 이룬 3개조가 교대해가며 바람을 일으켜 ‘독(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미리 만들어진 ‘덩미’(器本)에 부어 넣으며 주로 솔, 벧, 보습 등을 주조해 왔다고 함.

39) 『濟州風土錄』, 「三邑地 皆漢拏山之麓 崎嶇磽确 平土無半 畝耕者 如捶剔魚腹 似平曠而難遠望 以凹隆故也」

또한 김상헌(金尙憲)은 제주의 농경 풍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밭을 가는 자들을 보니 농기구가 아주 좁고 작아서 마치 어린아이 장난감과 같다. 그것을 물어 보았더니, “몇 치만 흙 속으로 들어가도 암석이 다. 때문에 깊이 갈 수가 없다.” 고 말하였다.<sup>40)</sup>

이것은 제주도의 열악한 환경과 풍토에 기인한 것이며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위의 예는 한참 후인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농업 환경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풍토에 적합한 농기구를 주조하는 풀무질 같은 기술이 세대를 달리 하면서 점차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형식을 통한 기능인을 양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지식묘나 개국설화를 통해 제주도 특유의 두레 형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제주도의 농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두레조직이 활용되었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제주도 소농의 노동확보 수단에는 노동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수눌음」과 「잡」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는 제주도 특유의 농업 두레로서 이러한 두레의 출현은 농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눌음이나 잡이 구체적인 노동교환 수단으로서 정형성을 띠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사라는 공동의 목적

---

40) 『南槎錄』卷一, 「余見耕田者 農器甚狹小 如兒戲之具 問之則曰 入土數寸 巖石 以此不得深耕云」

을 위해 사람들은 모였을 것이며 모인 가운데 농사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획을 궁리함으로써 농업관계의 기술교육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교환의 양식은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한 기능으로서 생활수단의 생산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생산이라는 교육의 본질 규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교육은 ‘생활수단의 생산’의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인 존재방식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농업관계 생산용구의 제작 그리고 농업 두레의 출현과 함께 농경은 개선되고 이에 목축의 개시가 겹침으로써 탐라인들의 정주생활은 발전되고 비로소 생존수단을 안정적으로 재생산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삼국지(三國志)><sup>41)</sup>나 <후한서(後漢書)><sup>42)</sup>에는 공히 탐라인들은 「소와 돼지를 잘 친다(好養牛及猪)」고 기록되었으며, <신당서(新唐書)><sup>43)</sup>에는 탐라인들이 「큰 돼지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산다(好養牛豕)」고 기록되었는데 목축기술교육 가운데 특히 이러한 동물 순양법(馴養法)이야말로 정주생활(定住生活)의 안정을 위한 기초지식이며 의사소통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탐라국의 교육적 담화와 행정을 가늠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이라고 하겠다.

---

41) 『三國志』, 魏志, 東夷傳, 「又有州胡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裡勢 乘船往來市買中韓」

42) 『後漢書』, 東夷列傳,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髡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43) 『新唐書』, 流鬼傳,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草屋」

## 2) 해양(海洋) 관계 교육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했던 탐라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저 아름다운 섬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열악한 생활공간에서 탐라인들은 이 바다를 생명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한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잠수업(潛水業)을 통한 섬에서의 생활과 선박을 이용한 외부 세계와의 교류는 어쩌면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소라고 하겠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도(孤島)라는 열악한 환경적 요소를 대외 교류를 통하여 극복하고 삶을 영위하였던 선사시대인(先史時代人)들로 이어져 온 어로(漁撈)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해양 교통수단의 발달을 가져오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는 필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탐라의 기술교육은 도내 생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업 분야와 외부와의 교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선과 항해술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라의 해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의 연희식(延喜式)(905년)<sup>44)</sup>의 기록이나 나라현 헤이쥬쿠(平城宮) 터에서 발견된 목간(木簡)에 ‘탐라복육근(耽羅鰔六斤)’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녀에 의한 잠수업도 오래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잠수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또한 전수를 통해 후대로 이어져 왔을 것이다.

---

44) 延喜式은 일본에서 905년에 편찬된 律令集

그리고 배를 만들거나 배를 다루는 일이 탐라인의 집단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그리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탐라인의 해상 활동은 그 역사의 전개와 더불어 시작된 오랜 것이었으며 따라서 조선과 항해술의 역사도 같은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 선박 중에 가장 원시적 형태를 지닌 선박인 ‘떼배’, ‘태위’, ‘테’, ‘터우’ 등으로 불리는 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배는 B.C 5 - 6,000년 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이 떼배를 이용하여 연안어로는 물론, 해초 채취용으로 쓰이고 있어 제주도의 떼배는 제주도의 어로 생활 중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고 하겠다(고광민, 1985). 이러한 떼배의 조선 과정과 구조 등이 예로부터 교육을 통해 전승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 테우라는 통나무배를 가지고 원거리 교역을 위해 항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원거리 교역을 위해 항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한층 정교하고 진전된 형태의 선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면, 신라 27년 선덕대왕(善德女王)은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업신여겨 괴롭혔으므로 이들을 불력(佛力)에 의하여 복종시키고자 황룡사(皇龍寺)에 9층석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그 1층은 왜(倭), 2층은 진(秦), 3층은 오, 월(吳, 越), 4층은 탁라(托羅), 5층은 응유(鷹遊), 6층은 말갈(靺鞨), 7층은 단국(丹國), 8층은 여진(女眞), 9층은 예맥(穢貊)을 지칭하고 있다.<sup>45)</sup> 여기서 우리가 눈

45) 『三國遺事』 卷第三. 黃龍寺九層塔, 「新羅第二十七代 女王爲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宮南皇龍寺建九層塔 則隣國之災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狄 第九層穢貊 又按國史及寺中古記」



여겨 볼 것은 탁라 즉, 탐라가 신라를 위협한 9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이 시기에 탐라는 해상활동을 통한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주변국을 위협할 정도의 경쟁 상대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뛰어난 조선기술과 독자적인 항해술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항해술(航海術)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해류(海流) 즉, 쿠로시오 [흑조(黑潮)] 를 이용한 항해를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사 · 고대 항해는 육지를 보면서 선박을 진행시키는 해안이동(海岸移動) 방법을 이용했다. 따라서 항해자는 자신의 위치를 항상 확인하면서 항해할 수 있었고, 기상악화나 야간에는 즉시 인근 포구(浦口)로 대피할 수 있는 이점(利點) 때문에 원시 항해술 시대에는 주로 연안항법(沿岸航法)을 많이 썼을 것으로 보인다. 항해 기간 중 거의 바람이 이용되고 있으며, 해류는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대한해협(大韓海峽)의 경우에는 복잡한 해류의 흐름으로 선사 항해에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 선박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논거가 타당한 것이라면 고대 탐라의 외부에 대한 항해는 어디까지나 해풍, 특히 계절풍과 해안이동으로써 매우 능동적이고도 계획적인 노력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하겠다(정진술, 1992). 이러한 항해술을 터득한 선지자(先知者)들에 의해 항해술이 후대로 전수되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다.

탐라는 이미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때부터 항해술이 도입되어 있었고 5세기경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당시 백제와 고구려가 적대 관계에 있었던 만큼 백제의 영토를 거쳐 육로로 왕래했다기보다는 해상 교통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북제주군,

2000).

이처럼 뛰어난 조선기술과 독자적인 항해술을 바탕으로 한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탐라는 일찍부터 신라는 물론 고구려나 백제와도 조공이나 해상교역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sup>46)</sup> 『삼국지』나 『후한서』에도 탐라인들은 「배를 타고 중한(中韓)에 오가면서 장을 본다<sup>47)</sup>」고 하였다.

또한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해상교류<sup>48)</sup>가 빈번하였음을 미루어볼 때 동해와 서해 혹은 남해를 넘어 다닐 수 있는 수준의 조선 및 항해술과 관련한 기술교육이 매우 활발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를테면 신라는 선부서(船府署)와 같은 조선기관을 설치하여 조선과 항해를 감독, 발전시켰는데 탐라 역시 나름대로 활발한 기술교육을 관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관리는 기술교육과 관련한 교육행정의 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예이기도 한 것이다.

탐라의 기술교육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아직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점차 조직의 구성원들이 기능 또는 직능에 따라 각각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체는 집단적 협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업은 필수적 요건이다. 더욱이 탐라국이라는 개별

---

46) 『高麗史』地理志, 「至十五代孫高厚 高濤 昆第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盖新羅盛時也」.

47) 註 36), 37) 參照.

48) 邊昇圭(1992). 일본과의 교역에 관한 기록, 「齊明天皇 7年(661) 耽羅遣王子阿彼伎等 貢獻. 天智天皇 3年(664) 耽羅遣使 來朝. 天智天皇 5年(666) 耽羅遣王子 姑如等 貢獻. 天智天皇 6年(667) 錦 14匹 結頁 19匹 緋 24匹 紺布 24端 桃布 58端 斧 26 杼 64 刀子 62枚 賜緣磨. 天武天皇 4年 耽羅王遣王子名麻伎伯筑紫. 天武天皇 5年 耽羅客賜船 1隻. 天武天皇 8年 耽羅使人返之共拜朝廷. 持統天皇 2年(688) 耽羅王遣佐平加羅等 旅紫館賜物名有差. 聖武天皇 3年(726) 耽羅 樂人 62人來」

국가체제를 정비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분담시키는 것은 행정의 원리로 본다면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가능한 한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일을 분담시키는 분업의 원리는 동시에 전문화의 원리를 수반하게 되는데 즉 조직체 구성원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적 숙련도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특수 업무를 분담하고 그 일을 반복함으로써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마침내 조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는 조직의 기본원리로서 탐라의 교육이 아직은 미미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교육행정의 원칙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고대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고대 제주도의 비형식적 교육에 내재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적 행정행위를 도출하는데 주안을 두며, 문자나 기술 양식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전형과 특질을 찾아 보고, 제주교육 나름의 지역성과 제주인들의 삶과 관련한 제주교육의 정체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제주교육발전의 토대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 고대사회에서의 교육의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고대 제주에서의 비형식적 교육에 내재한 교육적 행정행위의 도출을 통해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전형과 특질을 밝혀낸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내용에 따라 고대사회에서의 교육의 특징과 고대 제주교육행정의 전형과 특질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의 고대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자각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육의 목적은 보존에 있으며 집단생존이라는 생활자체의 목적과 동일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대에 있어 집단생존을 위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집단성원의 관리 문제, 곧 인구조절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출산(出産)과 장사(葬事)의 예이다.

출산과 장사의 예는 단순히 통과의례의 절차로 한정되기 보다는 개인이 살아가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문화적 기대에 따라 집단적으로 강요되는 일련의 사회교육적 교육풍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풍습의 관리는 고대교육의 보존적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일련의 교육행정적 절차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제주도의 지석묘(支石墓)의 성혈(性穴, cupmark)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기자습속(祈子習俗)의 부산물로,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풍속이며 고대의 전형이다. 그리고 지석묘 축조라는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동의 과정에서 제주 고대사회의 집단생존을 위한 보존적인 교육목적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삼성신화의 구조체계는 제주도 고대사회의 사고체계와 의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사회의 교육구조와도 관련이 깊고 제주도 고대사회의 집단생존을 위한 보존적인 교육목적이 일련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음을 시사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삼성신화의 구조에 드러난 소거지의 삼분은 사회공간의 삼분이며, 삼인 용출 그리고 삼계층의 서열화는 사회질서 구조의 삼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제주도 사회조직의 관리행정 기능이 삼분체계의 구조로 분화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이러한 삼분체계적 구조는 「계획 - 조직 - 통제」하는 현대행정의 관리조직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성신화의 구조는 고대 제주인들의 「정신생활의 행정」으로서 제주의 고대사회 성원들의 정신적 생활에 관여하는 형식 및 한계에 관한 공적

규정이며, 공동체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적 활동으로서 제주의 고대 교육행정의 독특한 구조이며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동체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적 활동으로서 제주도 고대 교육행정의 구조는 혼인지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지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지역외혼인(地域外婚姻)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결혼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통적 육아방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크다. 지역외혼인은 전통사회인들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관행화되어 생활 방식으로 지켜져 온 것이다. 이러한 관행의 준수는 정신생활의 행정이 지향하는 핵심내용이며 전통육아방식의 절차로서 유아교육과 관련한 교육행정의 일면인 것이다.

다섯째, 탐라국에서 언제부터 문자를 사용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몽계필담(夢溪筆談)』의 기록으로 보아 탐라국에는 고유의 특수한 표기문자가 있어서 고유의 언어적 특색을 이미 갖추고 있었으며 문자사용과 관련한 도야활동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탐라의 언어조직은 다른 언어집단과의 상호적 영향과 내적 소통을 통해 하나의 공속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탐라 특유의 언어적 특색을 통해 다른 언어집단들과의 공통성을 유지하고 좀 더 광범위한 언어 단일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여섯째, 고대사회에 있어서 기술교육은 아직 객관적 법칙성에 의한 기술과 주관적 법칙성에 의한 기능이 완전하게 구분된 상태는 아니지만, 집단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그 도구를 조작하는 등 제행위의 모방, 훈련, 학습의 일상사 외에도 특수한 비의(秘儀) 전수의 양식이나 형태 속에 그 모습들이 내재하고 있었다. 기술교육이란 다름 아닌 그

러한 규칙에의 입문을 말하는 것이며 입문의 절차가 곧 기술교육행정인 것이다.

탐라의 기술교육은 농업관계분야에 주목하게 된다. 제주도의 토질은 전작(田作)만이 가능한 화산토라는 풍토적 악조건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땅을 일구는 방법이나 도구의 개발 등은 탐라의 농업기술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농기구를 만드는 방법 등이 고스란히 후대로 전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기구를 주조하는 풀무질 같은 기술이 점차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형식을 통한 기능인을 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탐라의 기술교육은 외부와의 교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선과 항해술의 흔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탐라인의 해상활동은 그 역사의 전개와 더불어 시작된 오랜 것이었으며 따라서 조선과 항해의 역사도 같은 것이었다.

조선기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한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탐라는 일찍이 주변국들과 조공이나 해상교역을 통한 교류가 빈번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높은 수준의 조선 및 항해와 관련한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즉 탐라는 나름대로 조선 및 항해술과 관련한 활발한 기술교육을 관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관리는 기술교육과 관련한 교육행정의 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예이기도 한 것이다.

여덟째, 탐라의 기술교육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점차 조직의 구성원들이 기능 또는 직능에 따라 각각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체는 집단적 협동체제이기 때문에 분업은 필수적 요건으로 더욱이 탐라국이라는 개별 국가체제를 정비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분담시키는 것은 행정의 원리로 본다

면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가능한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일을 분담시키는 분업의 원리는 동시에 전문화의 원리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는 조직의 기본원리로서 탐라의 교육이 미미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교육행정의 원칙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결론 및 제언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며 체험하는 생활 세계에서의 삶의 표현을 의미하며 이러한 역사의 기저에는 인간의 존속을 위한 교육적 행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인류 문화의 생성과 발전이 모두 교육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자원 활용의 면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조직을 통하여 극대화된 생산성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필요와 조직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활동이야말로 교육행정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 인류 역사의 태동과 동시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본다면 교육행정의 역사 역시 인류의 태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교육행정의 역사는 제주교육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대사회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고대사회에서 행해졌던 교육의 특징을 보면, 교육의 목적은 보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집단생존이라는 생활자체의 목적과 동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산과 다산을 기원하는 기자습속의 부산물인 제주도의 지식묘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제주도 고대사회의 집단생존을 위한 보존적인 교육목적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음을 시사하는 예는 삼성신화에 드러나는 삼분체제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성신화의 삼분체제의 구조는 사회의 삼부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고대 제주도사회의 정신생활에 대한 공적규정이며 고대 제주도사회라는 공동체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적 활동으로서 제주도 교육행정의 독특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셋째, 탐라에서의 언어교육은 기록이 없어 확실하지 않으나 『몽계필담』의 기록과 제주도 방언의 어미 형태들 사이에 연대적으로 역사적 층위가 다르다는 보고들로 미루어 고유의 언어적 특색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문자사용과 관련한 도야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넷째, 탐라의 기술교육은 집단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그 도구를 조작하는 등 제행위의 모방, 훈련, 학습의 일상사 외에도 특수한 비의(秘儀) 전수의 양식이나 형태 속에 그 모습들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 제작과 도구 조작의 규칙을 습득한다는 것은 종족의 존속에 절대로 요구되는 본질적 행위로, 기술교육이란 다른 아닌 그러한 규칙에의 입문을 말하는 것이며 입문의 절차가 곧 기술교육 행정을 말하는 것으로 탐라의 기술교육은 농업관계분야나 조선과 항해술의 흔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사회의 제주교육행정이 진전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현실적 조건에 알맞은 교육과정과 행정을 통한 교육 행위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탐라국(耽羅國)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육지부(陸地部)의 어느 국가에 예속된 지역으로만 인식한 면도 없지는 않다. 오랜 시간 독자적인 생활 문화를 가지고 삶을 누려왔던 제주인들의 삶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방치해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도 된다. 인간의 삶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라는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형성되고 사멸해 버리는 속성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고(榮枯)의 세월을 지나온 제주 즉 탐라와 탐라인들의 삶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더군다나 탐라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가 한낱 씨족신화로만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탐라라는 국가의 형성과 그에 따른 제(諸) 방면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적 위상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대사회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해서 미미하지만 나름대로 그 현상을 추적해 보았으나,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서 고대 제주의 교육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제주 교육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더불어 제주사회의 전통과 문화규범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연구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 참고 문헌

- 강경선(1982). 제주도의 농경방식(농법)에 대한 비교 연구(상). 탐라 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고광민(1984). 제주도민구(1). 탐라문화 제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고광민(1985). 제주도포구연구. 도서출판 각.
- 곽영우 외(1993). 교육행정원론. 정민사.
-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편.
- 김공철(1990). 탐라어 연구. 일본학보 제 25집.
- 김무조(1989). 한국신화의 원형. 정음문화사.
- 김종업(1986). 탐라문화사. 제주: 조약돌.
- 김택규(1964). 동족부락의 생활구조 연구. 대구: 청구대출판부.
- 김형효(1987). 한국 신화의 원형. 한국철학사(상권). 동명사.
- 김환식 · 조규남(1991). 교육사 : 철학강의. 교육과학사.
- 남정걸(199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 박재문(2001). 한국교육사. 학지사.
- 박종성(2002).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 도서출판 월인.
- 박종필 외(2002). 미국 교육행정사. 도서출판 원미사.
- 변승규(1992). 제주도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 양진건(2001). 제주교육행정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 영남대 신라가야문화연구소(1979). 신라가야문화 제9,10집. 영남대학교.
- 윤정일(1994). 교육행정학 원론. 서울: 학지사.

- 이만갑(1973). 한국농촌사회의 사회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출판부.
- 이병도(1974). 한국고대사회와 그 문화. 서울: 서문당.
- 이청규(1985). 제주도 지식묘 연구(1). 탐라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청규(1994). 삼성신화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홍우 역(1980).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 전정태(1989). 교육행정 및 경영론. 대왕사.
- 정진술(1992). 한국선사시대 해상이동에 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2집. 제주도사연구회.
- 진성기(1967). 제주도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 진영일(1994). 고대탐라의 교역과 「국」 형성고. 제주도사연구 제3집. 제주도사연구회.
- 한치문(1973). 탐라실록. 한진문화사.
- 현용준(1983).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제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용준 (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 현평효 · 김홍식 · 강근보(1974). 제주도 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6집. 제주대학교.
- 제주도문화공보실편(1982). 제주도지(상). 제주도.
- 문화예술담당관실편(1993). 제주도지 제1권. 제주도.
- 북제주군(2000). 북제주군지(상·하권). 북제주군.
- 제주도편(1995). 제주의 민속 III. 제주문화자료총서 3. 제주도.
- 제주도교육연구원편(1974). 제주교육통사. 제주도교육위원회.

- 제주도교육청편(199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청.
- 제주도교육위원회편(197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위원회.
- 제주시편(1985). 제주시 30년사. 제주시.
-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1997). 제주유맥육백년사. 학문사.
- 한국교육행정학회(1989). 교육행정의 연구와 과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국철학회편(1989). 한국철학사. 서울: 동명사.
- 한라일보사편(1991). 한라연감. 한라일보사.
- 井上秀雄(1974). 新羅史 基礎研究. 東京: 有斐閣.
- Barnard, C. I.(1938).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  
Cambridge. MA: Havard Univ. Press.
- E. H. Wilds 저 김봉수 역(1994). 교육사. 학문사.
- Waldo, D.(1967). *The study of public adiministration*. New York:  
Random House.
- Stein, L, V. 猪木正道 譯(1949). 社會の概念と運動法則. みすず書房.
- Brubacher, J. S.(1947).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 Dilthey, W.(1968). *Gesammelte schriften* V. Göttingen.
- Humboldt, W. Von.(1969). *Werke in fünf bänden*, Bd. III. Darmstadt.
- 金富軾, 三國史記.
- 李衡祥, 南宦博物誌
- 一然, 三國遺事.
- 張漢喆. 漂海錄.
- 高麗史地理志.

金淨，濟州風土錄。

金尚憲，南槎錄。

沈括，夢溪筆談。

新唐書。

舊唐書。

范曄，後漢書。

陳壽，三國志 魏志 東夷傳。

<Abstract>

## A Historical Approach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Ancient Jeju

Yang, In Ho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 Ge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in ancient Jeju through historical approach, find types and characte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ancient Jeju, and make clear the identity of education which is related with the life of Jeju peopl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set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1) identify the character of education in ancient Jeju, (2) identify types and characte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examining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in ancient Jeju.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education in ancient Jeju is to preserve the society and group survival, not self-awareness of a person.

Second, in ancient time, people have an interest in the ceremony of parturition and funeral for the group survival. The ceremony of parturition and funeral is a part of one's life and a socio-educational culture enforced by the society and cultural expectation, not a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rite of passage. The management of the culture is said to be a procedur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justifying the purpose of ancient education. This can be found at cupmark of dolmens in Jeju.

Third, the structure of Sam-sung myth is an good example to show that the purpose of education for group survival in ancient Jeju is managed by a series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Three living spaces and three level of hierarchy in the structure of Sam-sung myth suggest that the management of ancient Jeju is divided by three levels. It means the three organizations of the society, and these organizations role as formal prescriptions for mental lives of group members and are administrative activities which are related with group survival.

Fourth,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ancient Jeju could be found in the myth of Hon-in-ji. In the educational perspective, the myth of Hon-in-ji implies a marriage custom in which one should marry a person who comes from other places. It has no legal binding force, but it is the central perspective of the society and traditional child-bearing procedures, so that is related with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preschool children.

Fifth, it is unknown that from when Tamra used its own character, but when inferring from "Mong-Kae-Pil-Dam", Tamra used its own character. This means that there should be existed some kind of education for learning the character.

Sixth, in ancient time, technical education for making small instruments, agriculture, and ship-building was implemented for making instruments which were necessary for group survival, and it was rel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procedures. The procedure of introduction is the administrative for technical education.

Finally, the technical education in Tamra suggests that members of the society took different jobs based on the function or job abilities, and as one principle of organization, the division of labor and specialization means that there was done some activiti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lthough it was primitive stage.